

- 건스타히로스 -

게임계의 지존 세가 - 리뷰

장르: 건액션 용량: 8M 제작사: 트레져 발매시기: 1993 기타: 2인용 가능

리뷰 작성: 메탈코어 [kdh-force@daum.net]

[등록: 2000년 11월 19일] [최종수정: 2009년 12월 2일]

세가의 든든한 서드파티 트레져의 대표작중 하나이며 메가드라이브 최고의 건액션게임으로 손꼽힌다 .

서로 다른 두 가지 무기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참신한 무기시스템이 돋보이며 곳곳에서 트레져 특유의 그래픽 기법들을 만끽할 수 있다.

메가드라이브의 처리속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거대한 다관절 캐릭터가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,사운드/그래픽/난이도/조작성/재미 어디하나 흠잡을 데 없는 걸작이다 .

본 작품은 세가의 휴대용게임기 게임기어로 이식되기도 했다 .



강력한 포스가 풍겨지는 건스타히로스 타이틀화면

개인적으로 건스타히로스는 베어너클 3를 선불예약한 후 약속한 발매시기에 만나오자 , 게임매장에서 미안하다며 시간 때우라고 빌려준 게임이다.

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식으로 시작했지만 ...
결국 그토록 기다리던 베어너클3보다 더 재밌게 플레이한거 같다 .
(건액션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탕의 재미는 떨어짐)

결과적으로 당시 이 게임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나 할까 ?



비행기위에서의 혈투. 다양한 상황에서의 진행이 돋보인다



동시 2인 플레이 장면

그 당시 플레이하면서, 그래픽과 스케일을 봤을 때 12M나 16M로 예상했지만 알고 보니 실제 용량은 8M였다 .

본 게임은 난이도 또한 적당한편이고 진행상 슈팅스테이지도 준비되어 있다 .

(슈팅이라 하기엔...==,-----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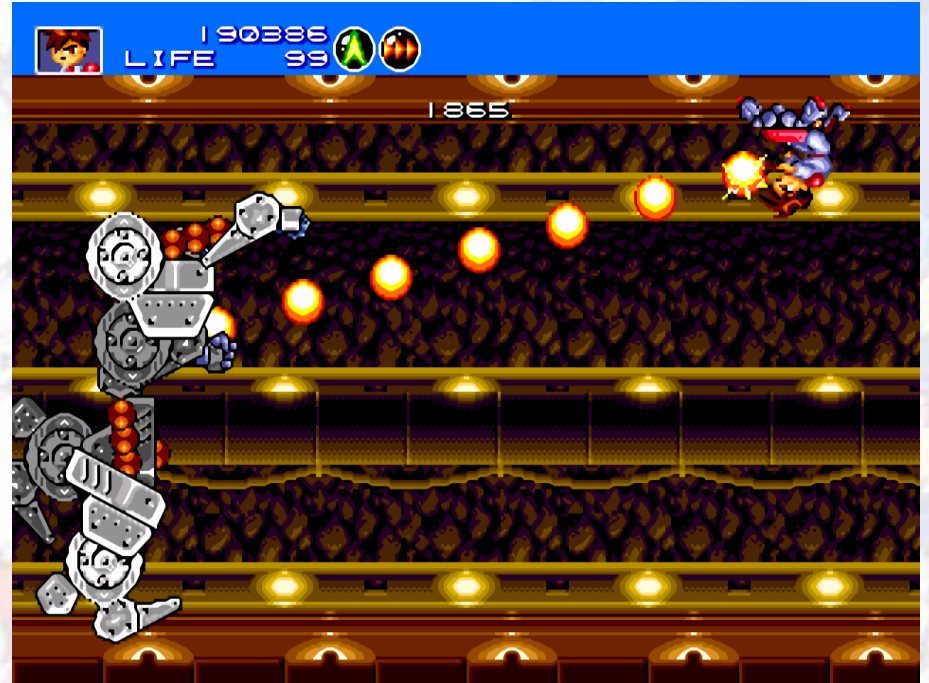
다양하고 화려한 연출들이 일품으로 지금 플레이해도 전혀 위화감을 느낄 수 없는 , 끝내주는 그래픽을 자랑한다 .
뿐만 아니라 스피디한 움직임과 게임 진행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.

어쨌든 마지막 보스를 제거할 때까지 모든 면에서 눈에 띄는 빈틈은 전혀 없었다 . 정말 잘 만든 게임이다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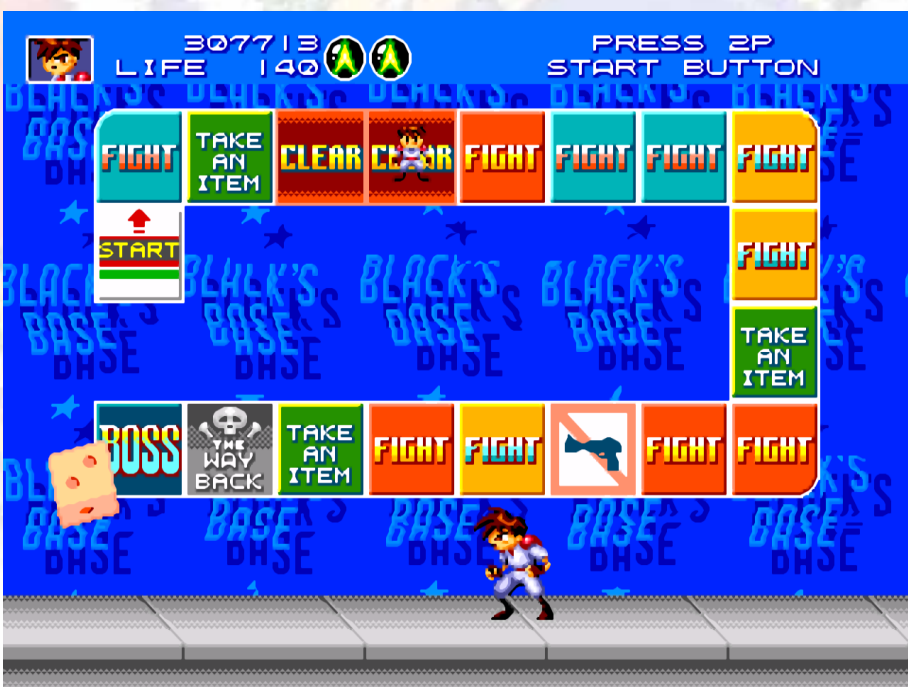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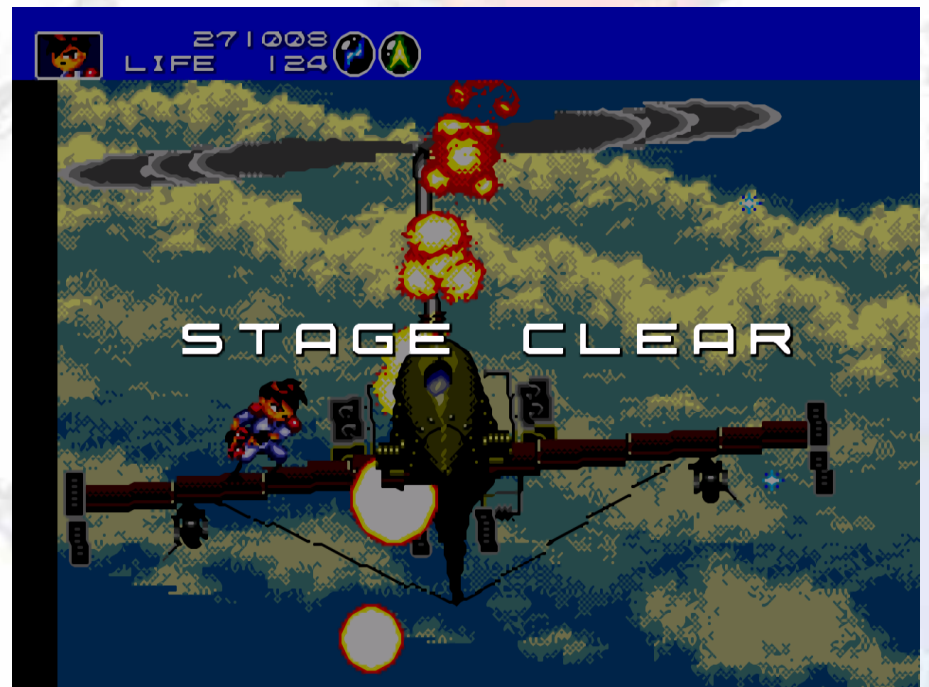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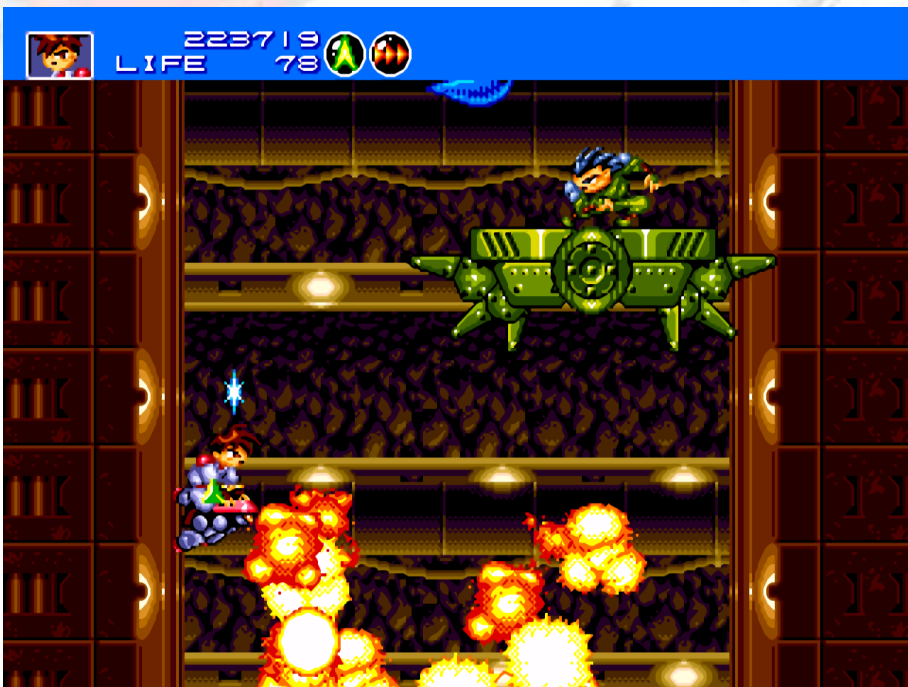
[게임 화면]



첫 번째 스테이지 보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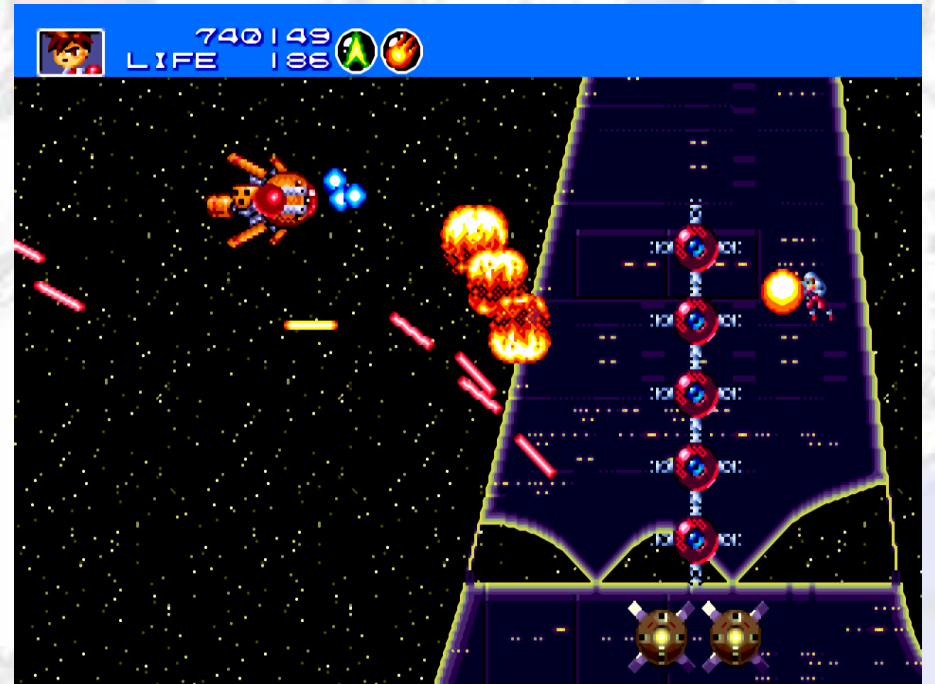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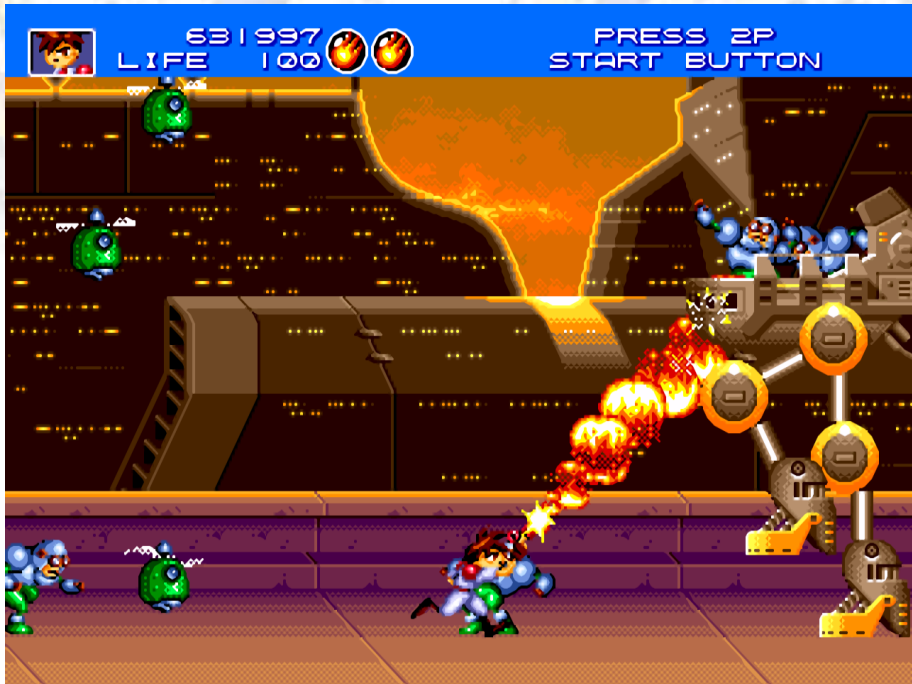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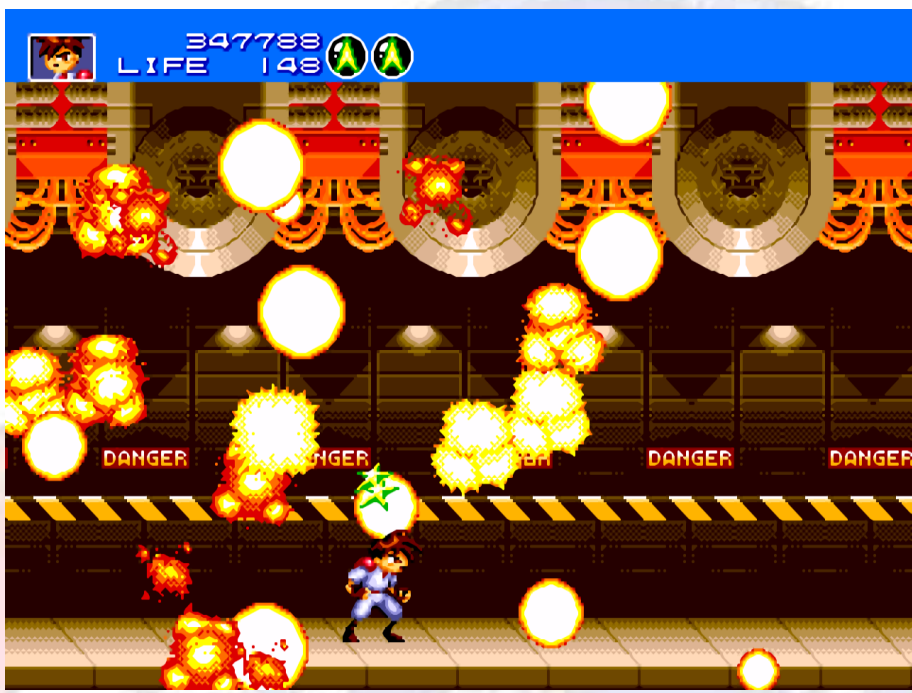
화려한 변신을 자랑하는 세븐포스



주사위를 통해 진행되는 특이한 스테이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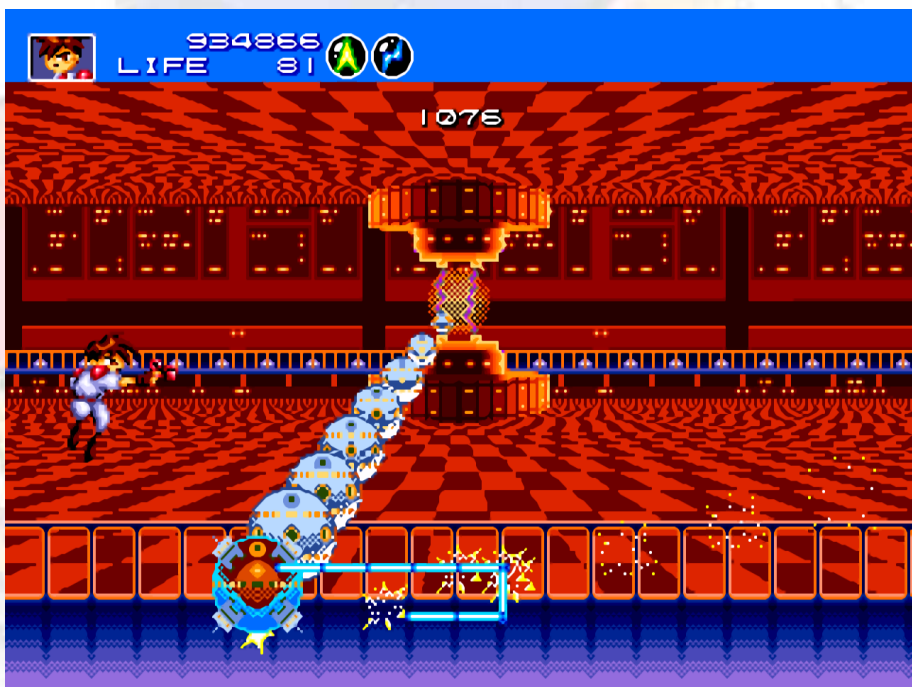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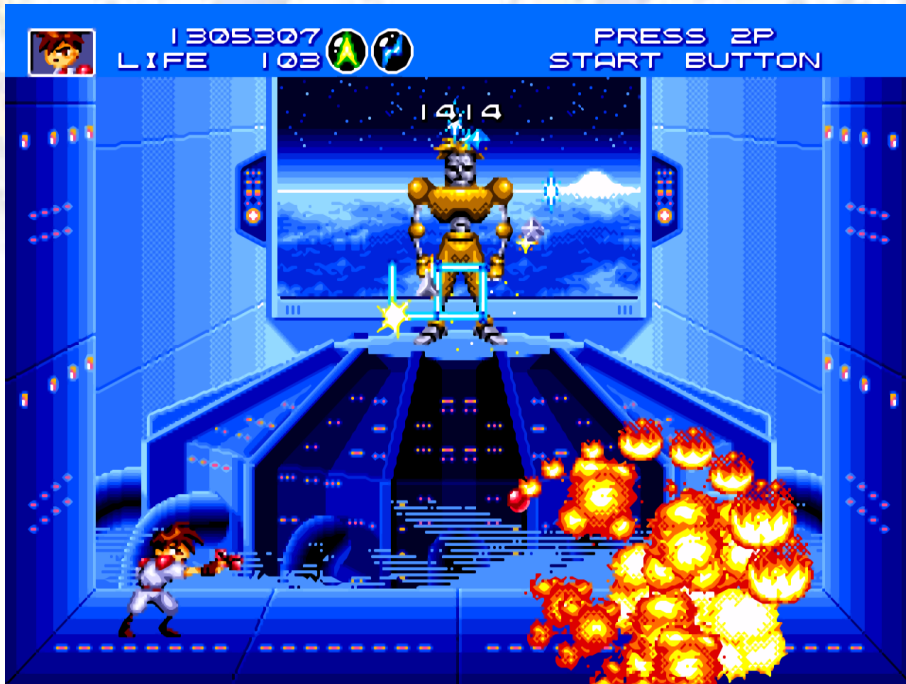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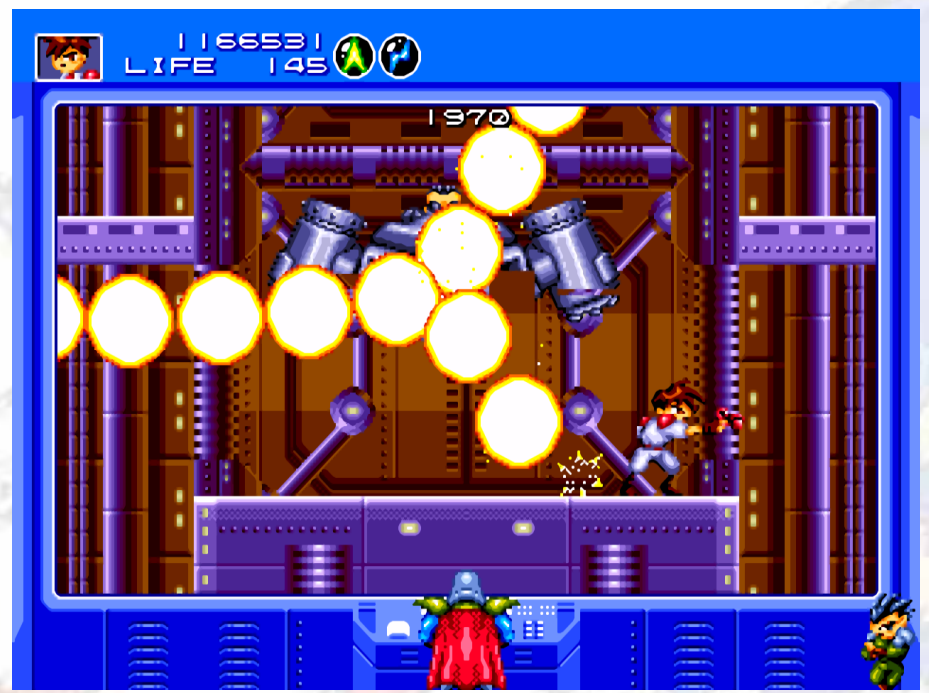
시간 내로 골까지 가면 되는 쉬운 코스에 걸렸다



곧곧에서 코믹한 요소를 볼 수 있다

갑작스런 슈팅 모드. 난이도는 최하 수준





최후의 보스: 몸체가 아닌 보석을 공격해야 한다

메가드라이브의 명가 트레저 작품

[게임 팁]

1. 두 가지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.
검은 머리의 캐릭터는 총을 쏘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고, 갈색 머리 캐릭터는 고정된 위치에서 총을 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.
2. B와 C를 동시에 누르면 방어 자세를 취하는데 방어자세 동안은 무적이다.
3. 건공격 말고도 슬라이딩이나 던지기, 날라차기(?)같은 몸통공격이 있는데 그 파워는 실로 막강하다.
특히 날라 차기(?)를 잘 이용하면 쉽게 보스를 박살낼 수 있다.

- THE END -